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정효정,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impact of adolescent Life Str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yo Jung Jung, Sung Je Cho*
Division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시 K구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청소년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중 응답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한 답변 8부를 제외하고 152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에서 학교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를 통해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인관계성향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fe stress of adolescents on interpersonal tendenci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60 middle and high school teenagers located in K Town, S C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as analysis methods. In addition, a three-step mediating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measurement variables, and Sobel test was conducted for statistical verification. First, among the sub-factors of life stress, school stres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interpersonal tendencies.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interpersonal tendencies,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confirmed. These results imply that life stress affects interpersonal tendencies through social suppor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eply verified the effect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tendencies by confi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tendencies.

Keywords : Adolescents, Life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ies, Social Support,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chosj715@daum.net

Received April 29, 2024

Accepted June 7, 2024

Revised May 28, 2024

Published June 30, 2024

1. 서론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성향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성향이 그들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1,2]. 따라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성향은 발달과업에서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변인인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인관계성향은 “개인이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역할성향과 개인이 타인에게 어떤 언행을 기대하는가의 사회관계성향, 타인의 언행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의 표현성향”을 의미한다[3].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유형과 대인관계성향의 관계에 관한 연구[4], 대인관계성향이 비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5], 위기청소년의 그릇이 마음챙김과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6]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보면, 청소년 스포츠 활동유형, 자아존중감, 그리고 심리적 분리 수준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하지만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된다.

생활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고조되는 심리적 요인으로,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는 자살 생각과 자살계획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7],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성향을 파악하여,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생활스트레스이란 “청소년의 내적 또는 외적 요구가 생겼을 때 자신의 자원으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지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을 의미한다[8].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는 학교생활 적응에 부(-)적 관계가 나타났고[9], 심리적 안녕감에도 부(-)적 관련성이 확인되었다[10]. 또한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와 생활스트레스 간에 부(-)적 관계가 있었다[11]. 특히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는 생활스트레스를 매개하여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에는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이 다양한 자원을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서 친구 지지, 가족지지, 교사 지지를 의미한다[13]. 사회적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고 있다[14]. 또한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와 대인관계 능력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특히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인관계성향, 대학 생활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16].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회적지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회적지지는 정신건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17].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대학 생활 적응 사이에서 사회적지지는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명자, 오진주의 연구[18]에서도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 생활 적응 사이에서 사회적지지는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 유능성[14], 정신건강[17], 대학 생활 적응[18] 변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성향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성향을 상승시키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가 대인관계성향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 중에서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성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3년 9월 4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S시 K구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 청소년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를 하기 전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한 후 자기 기입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자료는 총 160부 중 불성실한 답변 8부를 제외하고 15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8문항, 생활스트레스 25문항, 대인관계성향 17문항, 사회적지지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학력, 성적, 학교 유형, 가족구성, 소득 수준, 맞벌이, 지역으로 구성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측정용 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는 아래와 같다.

2.2.1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선관수[19] 연구에서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개인스트레스(8문항), 가정스트레스(9문항), 학교스트레스(8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개인스트레스 .821, 가정스트레스 .874, 학교스트레스 .8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2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개인스트레스 .813, 가정스트레스 .878, 학교스트레스 .856으로 나타났다.

2.2.2 대인관계성향 척도

대인관계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Lary의 대인관계행동모형, Schutz의 FIRO(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Krech 등이 밝힌 대인적 반응특성을 참조하여 안범희(1984)가 재구성하였다. 이를 박금숙[20]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역할성향 4문항, 관계성향 7문항, 표현성향 6문항 등 총 17문항이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질문의 문항은 역코딩을 하였다(12번, 13번, 16번, 17번).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성향의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기존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0.82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역할성향은 0.630, 관계성향은 0.816, 표현성향은 0.6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78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역할성향은 .690, 관계성향은 .695, 표현성향은 .704로 나타났다.

2.2.3 사회적지지 척도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 등(1989)이 제안한 SSAS(the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도구를 참고하여 한미현(1996)이 개발하였다. 이를 최아라[13]가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친구지지 8문항, 가족지지 8문항, 교사지지 8문항 등 총 24문항이다. Likert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질문의 문항은 역코딩을 하였다(20번).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연구의 사회적지지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친구지지는 .92, 가족지지는 .93, 교사지지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회적지지 신뢰도(Cronbach's α)는 .82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친구지지는 .877, 가족지지는 .913, 교사지지는 .820으로 나타났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빈도분석,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하였다. 생활스트레스, 대인관계성향, 사회적지지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n key variables

		(N=152)	
Sortation		Frequency	%
gender	man	75	49.3
	woman	77	50.7
School year	middle school	55	36.2
	High School	80	52.6
	ect	17	11.2
Grade	Lower	42	27.6
	Middle	50	32.9
	High	60	39.5
School Type	Humanities High School	65	42.8
	Business High School	32	21.1
	middle school	55	36.2
Family Composition	Parent	127	83.6
	Single Parent	11	7.2
	etc	14	9.2
Income Level	Lower	28	18.4
	Middle	89	58.6
	High	35	23.0
Area	City	146	96.1
	Farm Village	6	3.9
total		152	100.0

성별에서는 여자가 77명(50.7%), 남자가 75명(49.3%)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에서는 고등학생이 80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55명(36.2%), 기타 17명(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에서는 '상'이 60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 50명(32.9%), '하' 42명(27.6%)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 유형에서는 인문고가 65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55명(36.2%), 실업고 32명(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에서는 부모가 127명(8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4명(9.2%), 한부모 11명(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에서는 '예'가 92명(60.5%), '아니오'가 60명(39.5%)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서는 도시가 146명(96.1%), 농촌이 6명(3.9%)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분석

측정변수에 관한 기술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Sortation	N	Mean	SD	Skewness	Kurtosis
Personal Stress	152	5.00	2.85	.75	.31
Family Stress	152	5.00	2.51	.83	.49
School Stress	152	5.00	2.38	.78	.41
Life Stress	152	5.00	2.58	.67	.51
Role Orientation	152	5.00	3.18	.86	-.06
Social Orientation	152	5.00	3.35	.71	-.43
Expression Disposition	152	5.00	3.05	.62	.71
Interpersonal Orientation	152	5.00	3.19	.60	.20
Support Friend	152	5.00	3.69	.69	-.12
Family Support	152	5.00	3.86	.79	.08
Support of Teacher	152	5.00	3.45	.65	.54
Social Support	152	4.92	3.67	.59	.03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는 2.58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위변수에서는 개인스트레스가 2.85로 가장 높았고, 가정스트레스 2.51, 학교스트레스 2.38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성향은 3.19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변수에서는 사회관계성향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표현성향이 3.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3.67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변수에서는 가족지지가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지지가 3.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왜도값과 첨도값은 기준값을 만족하여 측정변수의 정규성이 확보되었다.

3.3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생활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 사회적지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성향과 사회적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of Measurement Variables

	P	F	S	L	R.O	S.O	E.D	L.O	S.F	F.S	S.T	S.S
P	1											
F	.487***	1										
S	.461***	.751***	1									
L	.751***	.902***	.875***	1								
R. O	-.225**	-.407***	-.401***	-.413***	1							
S. O	-.327***	-.464***	-.438***	-.489***	.582***	1						
E. D	-.325***	-.217***	-.345***	-.343***	.512***	.586***	1					
I. O	-.351***	-.435***	-.471***	-.497***	.814***	.877***	.829***	1				
S. F	-.178*	-.417***	-.549***	-.455***	.430***	.438***	.272**	.452***	1			
F. S	-.214**	-.486***	-.414***	-.449***	.331***	.390***	.212**	.373***	.579***	1		
S. T	-.166*	-.440***	-.529***	-.453***	.496***	.421***	.268**	.468***	.557***	.500***	1	
S. S	-.225**	-.538***	-.590***	-.541***	.495***	.497***	.298***	.512***	.848***	.852***	.802***	1

P: Personal Stress, F: Family stress, S: School Stress, L: Life Stress, R.O: Role Orientation, S.O: Social Orientation, E.D: Expression Disposition, I.O: Interpersonal Orientation, S.F: Support Friend, F.S: Family Support, S.T: Support of Teacher, S.S: Social Support

3.4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첫째,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adj R²=0.237로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23.7%로 나타났고, F=16.673(P<0.001)으로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공차는 0.1이상, VIF는 10.0 이하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D-W=1.959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학교스트레스(t=-2.738, p<0.01)는 대인관계성향 전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the Overall Interpersonal Tendencies

model	N.C		N. F		t	p	C.I.S	
	B	SE	β				tolerance	VIF
(constant)	4.330	.180			24.046	.000		
I.O	P	-.116	.066	-.145	-1.761	.080	.742	1.347
	F	-.102	.081	-.140	-1.260	.210	.411	2.436
	S	-.231	.085	-.299	-2.738**	.007	.424	2.360

R²=.253, Adj R Square=.237, F=16.673***, D-W=1.959

N.C:Non-standardized coefficients, N.F: Normalization Factor, C.I.S: Common lineity statistic, I.O: Interpersonal Orientation, P: Personal Stress, F: Family stress, S: School Stress,

p<.01, *p<.001

3.5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7)의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생활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7.884, p<0.001) 2단계에서 생활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7.007, p<0.001). 3단계에서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4.311, <0.001), 생활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3.894, p<0.001). 그리고 생활스트레스의 영향력이 2단계인 -0.497에서 3단계 -0.311로 감소되었고, Sobel test 결과 z=-3.78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지지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Interpersonal Tendencies

model	N.C		N. F	t	p	C.I.S	p			
	B	SE	β							
S.S	(constant)	4.908	.162	.293 (.288)	62.155 ***	30.230	.000			
	L.S	-.481	.061					-.541	-7.884***	.000
I.O	(constant)	4.348	.170	.247 (.242)	49.103 ***	25.552	.000			
	L.S	-.448	.064					-.497	-7.007***	.000
I.O	(constant)	2.635	.429	.330 (.321)	36.722 ***	6.146	.000			
	L.S	-.280	.072					-.311	-3.894***	.000
	S.S	.349	.081					.344	4.311***	.000

N.C:Non-standardized coefficients, N.F: Normalization Factor, C.I. S: Common lineity statistic, G:Grit, I.C: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P.P.C: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bel test : -3.781***, **p<.01,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분석한 결과, 생활스트레스 하위요인 중에서 학교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대인관계성향에서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 중단, 관계 단절 및 적응 실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6]. 또한 유아 교사의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성향에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21]은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고, 생활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청소년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증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생활스트레스가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 사회적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를 통해 대인관계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는 생활스트레스를 매개하여 대학 생활 적응에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연구[12]가 지지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15]는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변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해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위의 논의를 토대로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은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들의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는 줄이고, 대인관계성향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상담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대인관계성향에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족, 친구, 교사)를 통해 대인관계성향을 증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대인관계성향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사회적지지 자원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학교생활 적응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시 K구에 소재한 청소년들로 구성된 임의 표본집단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표본 지역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적지지 요인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지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1] Y. J.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High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1-15, 2011. <https://www.riss.kr/link?id=T12452294>
- [2] W. J. Kang,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n Social Development of Hearing Impaired Adolesce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13, No.3, pp.143-161, 2011. <https://www.riss.kr/link?id=A82676866>
- [3] I. J. Hwang, *Influences of Youths' 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of Dancing upon Their Sociality Develop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p.4-5, 2008. <https://www.riss.kr/link?id=T11229193>
- [4] J. H. Kim, J. 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 Youth's Sports Activ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Journal of Korean School Physical Education*, Vol.11, No.1, pp.31-39, 2001.
<https://www.riss.kr/link?id=A30109918>
- [5] W. S. Lim, H. S. Choi,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on Juvenile Delinquents' Self-Esstem",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12, No.3, pp.147-170, 2010.
<https://www.riss.kr/link?id=A82570492>
- [6] M. H. Kwon, S. J. Cho, "Effects of Grit on Mindful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endency of At-risk Adolescents", *Asia-pacific Journal or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9, No.2, pp.303-315, 2023.
<https://www.riss.kr/link?id=A108498565>
- [7] Y. S. Hong,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and the Buffering Effect of Problem-Solv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20, pp.7-33, 2005.
<https://www.riss.kr/link?id=A103150479>
- [8] J. W. Lee, *Impact Analysis of Teenagers' Nature-friendly Attitude on the Life Stress and Activity Competencies*, Ph.D dissertation, SungSan Hyo University, Incheon, Korea, pp.6-7, 2014.
<https://www.riss.kr/link?id=T14542658>
- [9] B. J. Seo, M. J.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luence of Daily Life Stress on Group Home and teenagers from conventional families in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 Largely Sampled from Teenagers from Daegu Metropolitan City -",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7, No.4, pp. 1-26, 2010.
<https://www.riss.kr/link?id=A104385800>
- [10] S. T. Lim, S. L. Hong, "The relations of parents' efficacy to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dolescents' stress of school life as a mediator",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5, No.3, pp.93-111, 2018.
<https://www.riss.kr/link?id=A105906447>
- [11] Y. J. Shin, "Mediation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Abilit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tr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8, pp.243-263, 2014.
<https://www.riss.kr/link?id=A104558596>
- [12] J. Y. Shin,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coping strategy,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on adjustment in college life", *Journal of Youth Counselling Association*, Vol.1, No.2, pp.5-23, 2020.
<https://www.riss.kr/link?id=A106937183>
- [13] A. R. Choi, *The effect of temperament and 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pp.9-10, 2017.
<https://www.riss.kr/link?id=T14473572>
- [14] K. M. Song, S. J. Cho,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Interpersonal Competence perceived by Crisis Adolesc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8, pp.433-442, 2021.
<https://www.riss.kr/link?id=A107825381>
- [15] J. F. Zhang, "The Effect of Interpersonal Skills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The Study of Culture & Art*, Vol.20, pp.143-180, 2022.
<https://www.riss.kr/link?id=A108427385>
- [16] J. H. Park, H. J. Choi, "Factors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nd College Life Stress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22, No.4, PP.39-48, 2021.
<https://www.riss.kr/link?id=A107939570>
- [17] S.A.Jang, J.H.Go,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Mental Health of Multicultural Youth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1, pp.662-673, 2021.
<https://www.riss.kr/link?id=A107261872>
- [18] M.J.Seo, J.J.Oh,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4, pp.815-824, 2021.
<https://www.riss.kr/link?id=T15530878>
- [19] K. S. Sun,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in Adolescents' Life Stress, Self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and Self-efficacy*,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2019.
<https://www.riss.kr/link?id=T15337008>
- [20] K. S.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Experience in Bullying or Being Bullied-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Anyang, Korea, pp.46-47, 2015.
<https://www.riss.kr/link?id=T13771239>
- [21] B. M. Yeo,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Infants 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aichai U niversity, Daejeon, Korea, pp.52-53, 2021.
<https://www.riss.kr/link?id=T15778288>

정 효 정(Hyo-Jung Jung)

[정회원]



- 2016년 2월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 석사)
- 2023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교육학, 사회복지, 청소년지도

조 성 제 (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데이터베이스전공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콘텐츠, 교육학, 데이터베이스